

W:WOOSUNG

2023년 8월

주간 축산 이슈 뉴스클리핑

8월 1주차 HOT ISSUE

- 10월 1일부터 원유 기본가격 인상
-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기’ 민원 시달린 농가 극단 선택



10월 1일부터 원유 기본가격 인상

리터당 88원·
가공원유 87원
유업체, 가격 저항 눈치싸움

올해 10월 1일부터 원유 기본가격이 인상된다. 원유 기본가격은 리터당 88원, 가공원료유 기본가격은 리터당 87원 인상됨에 따라 올해 음용용 원유 기본가격은 리터당 1084원, 가공용 원유는 리터당 887원이 적용된다.

원유가격 협상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이제 유업체들의 눈치게임이 시작됐다.

원유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가 인상이 관행처럼 뒷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원유기본가격 인상의 원인도 있지만, 근로시간 축소 등으로 경영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업체는 소비자가격 인상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백색 시유 가운데 대표상품이라 할 수 있는 1ℓ 카톤팩 우유의 가격 인상 시, 3000원을 넘어선다는데 부담감이다.

벌써 일각에서는 우유가격 저항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마저도 소비자 가격 인상 자제를 요구하면서 유업체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과도한 유통마진 때문에 실제 원가 인상분보다 크게 인상한다는 오명이 반복되면서 올해도 소비자가격 인상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올해 원유기본가격 인상이 10월 1일 자로 단행되면서 통상적으로 원유가격 인상후 2개월 후 소비자가격 인상이 이뤄졌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연내 가격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우협회 OEM사료 두달 연속 가격 인하

이달엔 더 내려...요인 발생 따라
육성우 포대당 1만1천250원으로

한우협회가 전용 OEM사료 가격을 7월에 이어 8월에도 인하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8월 사료 가격에서 ‘대한한우 육성우’ 기준으로 포대당 1만1천250원으로 7월 기준가격 1만1천600원 보다 더 내렸다.

협회 사료가 1만1천250원까지 내려간 것은 올 해 들어 처음이다. 협회는 매달 곡물 가격과 환율변동에 따른 영향을 사료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일반 배합사료 및 농협사료의 가격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사료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했으니 가격에 반영하는 것이다. 협회는 사료 사업으로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을 뿐 더러 수익을 남길 이유도 없다. 원료 가격에 따른 것이며, 이것은 우리 뿐 아니라 전 사료업체가 같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종 가축전염병 '소 럼피스킨병' 긴급행동지침 발표

주로 모기·진드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
국내 발생·전국 확산시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럼피스킨병(LSD, lumpy skin disease)은 피부, 점막, 내부장기의 결절이나 궤양성 병변이 특징인 소의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적은 없지만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주로 모기, 진드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되며 오염된 주사기나 인공수정 등으로 인한 기계적 전파도 가능하다.

럼피스킨병 의심증상으로는 지름 2~5cm의 단단한 피부 결절이나 고열, 과도한 침 흘림, 림프절 종대, 유량 감소 등이 지목된다.

수의사가 신고한 의심농장이 럼피스킨병으로 확진될 경우 최종 접촉일로부터 7일간 타 농장 및 관련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럼피스킨병이 국내에서 발생했거나 전국 확산이 우려될 경우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을 발령할 수 있다.

확진시 발생농장에서 사육하는 감수성 동물(소)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한다. 발생농장 반경 500m이나 역학 관계 농장 등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도 실시할 수 있다.

예방적 살처분은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동물 및 질병 매개체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검역본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부분 살처분 근거도 명시했다. 긴급백신접종을 실시한 후 28일이 경과되어 항체가 형성된 경우 감염개체 등으로 살처분 범위를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발생 시에는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긴급백신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지난해 방역당국은 럼피스킨병 유입에 대비해 백신 54만두분을 비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연예

이는 전

이러

비동물

속전염

(Skin



0H7H

- 10

d Man

1010 아

발생

--	--

중국,





럼피스킨병 의심 임상증상 발견시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자체

1588-4060/9060

주요 임상증상



피부결절(혹)이 특징적인 임상증상

감염이 되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음

- 고열(40~41.5℃), 식욕부진, 우유 생산량 감소
- 피부에 지름 1~5cm 정도의 결절(단단한 혹) 형성
 - * 결절 크기는 다양(5cm 이상)할수 있으며, 병이 경과함에 따라 결절중앙에 딱지가 생기고 탈락하며 궤양화
- 피부 외 눈의 각막, 구강 점막, 소화기, 호흡기 등의 점막에도 병변(결절 등)이 나타남
- 눈, 코의 분비물 증가, 과도한 침흘림
- 임신 소에서 유산, 수소의 불임 등

감별진단이 필요한 주요 유사질병

- 파리·진드기 등 곤충 물림으로 인한 과민반응인 두드러기 (Urticaria), 쇠파리구더기증(Warbles), 피부사상균증(Ringworm), 피부방선균증(Dermatophilosis), 소류코시스(Bovine leukosis), 유두종(Papilloma), 가성우두(Pseudocowpox), 소구진성 구내염(Bovine papular stomatitis), 우두(Cowpox), 가성럼피스킨병*(Pseudo-lumpy skin disease), 모낭충증*(Demodicosis) 등

*국내 미발생 가축전염병



임상증상 (피부결절)

* 머리부위, 생식기 및 항문주변 등 털이 적은 부위에서 피부결절 관찰 용이, 중증인 경우 몸 전체에 피부결절 형성



* 출처 : Lumpy Skin Disease - A Field Manual for Veterinarian FAO 2017

임상증상



주둥이 및 입술의 궤양성 병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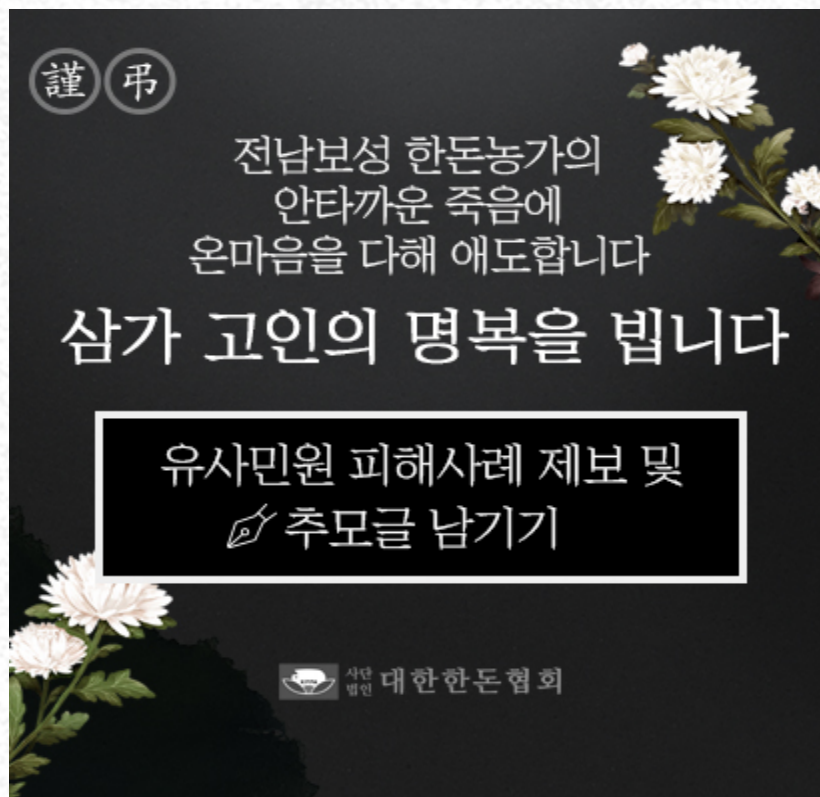


구강 내 궤양성 병변



기관 내 병변

* 출처 : Lumpy Skin Disease - A Field Manual for Veterinarian FAO 2017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기’
민원 시달린 농가
극단 선택**

**‘다시는 이런 일 없길’
추모 쇠도
한돈협회,
추모위원회 구성 대응**

수개월에 걸친 악의적인 환경 민원과 이로 인한 행정규제로 심한 고통과 심리적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남 보성의 한돈인을 위한 추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한돈협회가 지난 2일 협회 홈페이지에 추모 페이지를 마련한 이후, 깊은 슬픔과 애도의 글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과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유사민원 피해 사례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다.

한돈협회는 “악성 민원과 이로 인해 생을 저버리는 상황발생에 전국 한돈인은 깊은 슬픔과 충격,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악성 민원에 휘둘리는 지나친 행정규제가 축산업의 기반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죄 없는 농민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상황이 더 이상 반복하거나 방치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가축분 퇴비 수출 확대 모색

**작년 900만불 수출 기록
농축산부 수출 지원 보조
축산, 탄소 중립 기여 기대**



퇴비가 최근 수출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축산환경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축분 퇴비(동물성 또는 식물성 제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비료) 수출 물량은 3만8천409톤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894만9천불의 수출고를 기록했다. 이는 18년 대비 2.2배 증가한 물량이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베트남(48.6%), 일본(42.0%), 중국(5.8%) 순으로 나타났다.

가축분퇴비 수출 시장은 현재 가축사육 선진국인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은 매년 11억달러 이상(540만 톤 이상)을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몇 개 업체만이 수출에 참여, 아직 국내 퇴비 수출을 위한 기반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올해부터 정부가 퇴비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톤당 5만원의 수출 비용을 지원키로 한 것. 지원 조건은 가축분뇨(반입 총량의 50% 이상 활용)를 활용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저장 시설을 갖추고 수요처를 확보한 업체에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에 축산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해 퇴비로 만들어 비료로 사용하면 작물 생산량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국내에서 자급하고 남은 가축분 퇴비를 수출하면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또 분뇨 자원 재활용을 통해 탄소 중립에도 기여, 환경오염원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가축 퇴비분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아울러 가축분 퇴비 수출·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 설립 등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I 위험수준 비례 지역·농가단위 차등 방역 조치

농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개선 대책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전 예방 강화, 위험도 기반 과학적 방역, 책임 방역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동절기 국내에서 고병원성 AI는 농장에서 75건, 야생조류에서 174건이 발생했다.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AI가 유행하는 상황 속에서 선제적인 방역조치로 수평전파를 차단, 상대적으로 발생이 낮고 살처분을 최소화 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AI 발생농장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근본적인 질병발생 차단을 위해 농장의 사육환경 개선 및 방역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방역 개선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가금농장 AI 발생과 관련이 있는 철새의 서식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지역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한편 항원이 최초 검출된 사례가 있는 철새도래지 9개소에 대한 예찰을 10월에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과거 조류인플루엔자가 다발한 24개 시·군에 대해 검사 주기 단축·점검 등 지역 단위의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고위험 농가를 선별해 농가 단위 예찰·검사 등 강화된 방역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한편 살처분 최소화를 위해 위험도 평가를 통해 지역별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등 위험 수준에 비례해 지역 및 농가 단위까지 차등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위험 수준을 통제하면서 일률적인 방역조치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동절기 산란계 30만수 이상 사육농장에 적용했던 방역 강화조치를 20만수 이상 사육농장(69호)까지 확대하고, 30만수 이상 사육농장에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도 시범 도입한다.

집중 호우 피해 속출 닭고기 수급 비상

북경기 공급 태부족 우려
계열업체 입식 확대 시급



최근 중·남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육계농가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닭고기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연중 최대 성수기인 삼복을 맞아 닭고기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이번 집중호우 피해까지 집중돼 공급 감소가 우려된다는 전망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한 가축 피해마릿수는 8월 2일 현재 총 99만9100마리. 이중 닭·오리에서 94%에 달하는 94만700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큰 실정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호우 피해가 집중된 충청권을 비롯해 전북·경북지역 육계농가의 피해가 상당하다”면서 “폐사뿐 아니라 시설이 물에 잠기는 등의 피해가 속출해 육계 공급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경연 관계자는 “닭고기 수급안정을 위한 계열업체의 입식 확대가 시급하다”면서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철저한 사육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8월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잇따른 고양이 AI 확진 가금업계 초긴장



최근 서울에서 고양이가 고병원성 AI에 잇따라 확진되며 가금업계가 덩달아 긴장하고 있다. 자칫 가금육 소비 저하 등으로 불똥이 튈 수 있어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보호시설의 고양이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한데 이어, 30일에는 서울 관악구 보호시설의 고양이에서 AI가 확진됐다. 이러한 가운데 고양이 사료에서도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에는 관악구 고양이 AI 발생시설에서 채취한 고양이사료 시료검사에서도 H5형 AI 항원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국내 고양이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

당국은 이번에 고양이에서 확인된 H5N1형 바이러스의 경우 조류에서 고양이, 사람으로 이어지는 중간 ‘n차 전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예방 조치를 시행 중이다.